역사 인물 논평을 통해 본 근대 전환기 유학자의 출처와 처세 의식*

—매천 황현의 경우를 중심으로—

백진우(전주대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 목 차 〉

1. 머리말
2. 근대 전환기가 소환한 역사 인물
3. 근대 전환기 유학자의 출처와 처세 의식
   3.1. 은거(隱居)와 출사(出仕)의 갈림길
   3.2. 참된 유자[眞儒]와 거짓 유자[僞儒]의 변별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매천 황현이 남긴 역사 인물 논평 성격의 사론 산문 3편을 분석의 중심에 두고서 근대 전환기를 살아간 유학자(儒學者)의 출처와 처세 의식이 어떠했는지를 살핀 글이다. 출처와 처세는 지식인으로서 유학자가 평생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황현은 사론 산문을 통해 자신의 출처관과 처세관을 일정 수준 드러내 보였다. 그는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라는 방식을 빌려 국가가 장차 망하려는 시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견지해야 할 가치를 제시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유교가 지탱해온 전통적인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5347)

www.kci.go.kr

가치가 위협받고 희석되는 상황 속에서 유학자들이 어떤 고민을 했으며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의 논평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황현은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 즉 논평이라는 방식을 빌려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처사를 자처하며 은거하더라도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거짓 유자의 모습을 멀리하고 참된 유자의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당대 지식인들의 거짓된 모습에 대한 비판이자, 자기 자신이 평생 지키고자 한 가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제어 : 황현(黃玹), 매천집(梅泉集), 사론(史論) 산문(散文), 출처(出處), 처세(處世)

1. 서론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 구한말(舊韓末)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근대 전환기는 정치·종교·철학·역사·예술 등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옛 관습과 새로운 문명이 충돌하던 시기였다. 외부로부터 타의(他意)에 의해 유입된 새로운 요소들은 이 시기를 살아갔던 지식인들이 일평생 지켜왔던 가치관을 흔들기에 충분하였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식인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그리 많지 않았다. 자신이 평생 옳다고 믿어 왔던 가치를 굳게 지키려 노력하거나, 혹은 시대적 조류를 받아들여 새로운 가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혹은 상반되는 지향 사이 그 어딘가의 지점에서 절충안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격변기를 살아간 당시 지식인들의 출처(出處)

www.kci.go.kr

와 처세(處世) 의식의 특징적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매천(梅泉) 황현(黃玹, 1855~1910)이 남긴 3편의 사론 산문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벼슬에 나아가거나 물러남'을 의미하는 '출처'는 전근대시기를 살아간 유학자(儒學者)들에게 있어서 무척 중요한 가치였다. 자신이 일생 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바탕으로 관직에 나아가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이루고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일은 유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당연한 현실적 목표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상이 현실 정치에서 실현되기 어려움을 깨닫거나 군주의 지우(知遇)를 입지 못할 경우 관직에서 물러나 조용히 은거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으로 인식되었다.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치세(治世)에는 군주를 도와 올바른 정치가 펼쳐지도록 도와야 하지만, 난세(亂世)에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고 판단하면 물러나 은거하는 편이 유자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학자들의 출처 의식과 관련하여 공자(孔子)와 맹자(孟子)의 언급은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공자는 거백옥(蘧伯玉)의 출처를 칭찬하면서 "나라에 도가 있으면 나아가 벼슬을 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물러난다."[1]고 하였는데, 이는 후대 유가(儒家)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출처에 관한 대전제이자 일종의 암묵적인 행동 지표와도 같았다. 한편, 출처에 관한 맹자의 언급은 나아가고 물러나야 하는 경우를 좀더 세분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맹자는 백이(伯夷), 이윤(伊尹), 공자를 각기 다른 유형의 출처를 보인 대표적인 예로 내세우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상이 다스려지면 나아가고 혼란하면 물러간 이는 백이이다.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겠으며, 누구를 부린들 백성이 아니겠는가?'라 하며 나라가 다스려져도 나아가고 어지러워도 나아간 이는 이윤이다. 벼슬할 만하면 벼슬하고 그만둘 만하면 그만두며, 오래 머무를 말하면 오래 머물고 빨리 떠날 만하면 빨리 떠난 이는 공자이다."[2]

---

1) 『論語 · 衛靈公』, "君子哉, 蘧伯玉. 邦有道, 則仕, 邦無道, 則可卷而懷之."

2) 『孟子.公孫丑上』, "治則進, 亂則退, 伯夷也. 何事非君, 何使非民, 治亦進, 亂亦進, 伊尹也. 可以仕則仕, 可以止則止, 可以久則久, 可以速則速, 孔子也."

www.kci.go.kr

이러한 맹자의 시각에서 볼 때, 백이 · 이윤 · 공자는 모두 출처에 관한 각자의 도를 잘 실천한 이들이며 성인으로 평가할 만한 이들이었다. 그런 까닭에 세 명 모두를 언급했지만, 결국 자신이 배우기를 원하는 이는 공자라고 하였다.

그런데 맹자의 언급은 이후 후대의 유학자들에게 출처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한편 자신의 처신에 대한 훌륭한 구실(口實)이 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치세일 경우 관직에 나아가 자신의 뜻을 펼치는 행위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난세일 때는 벼슬길에 머무느냐 혹은 벼슬을 떠나 은거하느냐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백이를 떠올리며 물러나는 일을 당위로 여기는 이가 있기도 하고 이윤을 떠올리며 현실 정치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이가 있기도 하다. 또 어쩌면 공자처럼 출처와 진퇴의 때를 잘 알고 행동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자와 같은 성인의 경지가 아니면 도달하기 힘든 일일뿐더러 자칫 자신이 살아가는 당대에는 정도(正道)를 걷지 못한 기회주의자라는 오명(汚名)을 뒤집어쓰기 쉬운 처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가의 전통적인 출처관을 염두에 두고 다시 근대 전환기의 상황을 떠올려보자. 유교가 지탱해온 전통적인 가치관의 위상과 의미는 차츰 희석되고 외세(外勢)에 의해 초래된 혼란함이 우리 사회 여러 곳에 틈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지식과 가치관이 옳은 것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왔던 유학자들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출처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세상을 위해 벼슬에 나아가 자신의 지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었던 이들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출처와 진퇴를 명확하게 결정하기가 분명 쉽지 않았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혼란한 시기에 유학자로 살아가면서 출처와 처세에 관한 고민을 남긴 대표적 인물로 매천 황현을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황현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재야 학자일 뿐만 아니라, 혼란한 시대 속에서 지식인으로서의 고뇌를 자결(自決)의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그가 가졌던 고민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www.kci.go.kr

2. 근대 전환기가 소환한 역사 인물

특정한 시기에 빈번하게 언급되고 소환된 역사 인물들이 당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효한 참조 준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 편의 선행 연구가 보여준 바 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역사 인물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묘·병자호란 시기를 거치면서 주로 언급된 역사 인물은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관중(管仲)이었다. 관중은 환공(桓公)을 도와 큰 치적을 남긴 명재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본래 자신이 모시던 군주인 공자규(公子糾)와의 의리를 저버린 실절(失節) 행위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느냐 혹은 청나라와 화친하느냐의 기로에 섰던 조선의 외교적 입장과 맞닿는 면이 많았다. 관중이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중요한 화두(話頭)로 빈번하게 등장한 배경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3]

전란으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고 적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활발했을 때 주로 언급된 이들로는 월왕(越王) 구천(句踐)과 오자서(伍子胥)를 들 수 있다. 구천은 오(吳)나라에 굴욕적으로 패전한 후 2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치욕을 견뎌내며 결국 복수에 성공했던 인물이며, 오자서 역시 부형(父兄)의 원수를 갚기 위해 평생을 바친 끝에 복수에 성공했던 인물이다. 따라서 이들은 조선이 국가 차원에서 일본과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다짐할 때 일종의 역할 전범(役割典範, role model)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 국왕과 신료들은 물론이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위한 역사 유비의 주요 담론으로 활용되었다.[4]

---

3) 백진우, 「丁卯.丙子 胡亂 시기 管仲의 상징성과 歷史 類比 -설득 근거로서의 활용 양상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35집, 동양한문학회, 2012, 65-89면.

4) 백진우, 「인물 영사시를 통해 본 조선후기 대청 복수 담론의 일국면」, 『개신어문연구』 36집, 개신어문학회, 2012, 5-40면; 백진우, 「병자호란의 상흔에 대한 문학적 치유 양상 연구-역사 인물 구천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69집, 민족어문학회, 2013, 31-57면; 송재혁, 「왜란·호란 양란기 구천 담론과 재건의 정치」,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6권,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7, 91-122면.

www.kci.go.kr

이처럼 특정한 시대와 그 시대가 소환해낸 역사 인물을 연결시켜 해석하려는 시도는 위에서 제시한 사례 외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역사 인물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소환되고 언급되는 이유를 시대적·사회적 배경과 연계시켜 고찰해보고자 하는 시도는 최근 들어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한(漢)나라의 장군이었다가 흉노(匈奴)의 포로가 된 후 19년간 충절을 지키고 전향하지 않았던 소무(蘇武)의 충절을 시대적 요구의 관점에서 해석한 시도,[5] 왕의 폐립(廢立)을 주도한 신하로서 국가의 안정을 이뤄낸 공신으로 자주 언급되는 전한(前漢)의 곽광(霍光)이 중종반정(中宗反正)을 전후하여 신하들의 상소문과 군주의 비답(批答)에 자주 활용되었던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 시도,[6] 정국이 혼란한 진(秦)나라 때에는 깊이 은거하였다가 한(漢)나라 건국 이후 초빙에 응했던 상산사호(商山四皓)를 조선중기 사림(士林)들의 출처관(出處觀)과 연계시켜 해석하고자 한 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7]

이상의 몇몇 예를 통해 살펴보았듯 역사 인물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빈번하게 호출될 때에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혹은 분위기와 관련지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근대 전환기의 유학자들이 출처와 관련하여 논평을 시도한 역사 인물들이 누구였는지 먼저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근대 전환기에 창작된 역사 인물 논평은 대부분 사론 산문의 형태로 남아 전한다.[8] 이전의 전통적인 한문 산문 창작 관습을 이어받아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를 고문(古文)의 체제를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입증해나가는 글쓰기 방식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유가적 가치관을 견지하고자 했던

5) 정하정, 「蘇武를 제재로 한 과표 창작의 시대적 동인과 그 양상」, 『한국언어문화』 60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6, 331-357면.
6) 최혜미, 「霍光 고사의 정치적 활용 양상 일고-중종반정을 전후한 시기를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49집, 근역한문학회, 2017, 351-372면.
7) 우지영, 「상산사호 관련 논변을 통하여 본 조선 중기 문인들의 출처관」, 『국학연구』 32집, 한국국학진흥원, 2017, 121-159면.
8) 사론 산문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백진우, 「조선후기 사론 산문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1, 13-82면.

www.kci.go.kr

지식인 가운데 사론 산문을 남긴 대표적인 작가들의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정직(李定稷, 1841~1910)의 저술 『연석산방미정문고(燕石山房未定文庫)』에는 총 277편의 산문 작품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논변류(論辨類)에 속하는 논(論)이 104편, 설(說)이 66편이다. 다시 이 가운데 역사 인물에 대한 논평을 주제로 한 사론 산문 성격의 글이 113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9] 이 중 출처나 처세와 관련한 논의에 해당하는 역사 인물로는 백이(伯夷), 상산사호, 모수(毛遂), 안영(晏嬰) 등을 들 수 있다.

이남규(李南珪, 1855~1907)의 글은 그의 문집 『수당유집(修堂遺集)』에 실려 전한다. 『수당유집』에는 총 6편의 논이 실려 있는데, 6편의 논 작품이 모두 사론 산문에 해당한다.[10] 이남규의 글은 대부분 역사 인물을 당대적 유의미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분석하기보다는 학문적 논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자 한 경향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대 전환기라는 시대적 배경이 창작 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좀더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출처와 관련해서는 백이, 서서(徐庶), 허형(許衡)을 대상으로 한 글을 들 수 있다.

역시 근대 전환기의 유학자 가운데 한 명인 나헌용(羅獻容, 1851~1925)의 『혜전집(蕙田集)』에도 7편의 사론 산문이 전한다.[11] 나헌용의 글은 문집의 편차상 창작 시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1900년부터 1909년 사이에 지은 글이다. 나헌용의 글 가운데에는 백이, 복식(卜式)에 관한 논의가 지식인의 출처와 관련이 있다.

강화학파(江華學派) 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이건방(李建芳, 1861~1939)은 자신의 저술 『난곡존고(蘭谷存稿)』에서 다수의 사론 산문을 남기고 있다.

---

9) 김영은, 「석정 이정직의 사론 산문 고찰」, 『한국문화연구』 27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4, 77-79면.

10) 「진평주발론(陳平周勃論)」, 「기신론(紀信論)」, 「서서론(徐庶論)」, 「동공론(董公論)」, 「백이론(伯夷論)」, 「허노재론(許魯齋論)」의 6편이다.

11) 「영려론(嬴呂論)」, 「백이론(伯夷論)」, 「복식론(卜式論)」, 「구익부익론(鉤弋夫人論)」, 「당우읍손론(唐虞揖遜論)」, 「진시황론(秦始皇論)」, 「송태조론(宋太祖論)」의 7편이다.

www.kci.go.kr

『통감(通鑑)』을 읽고 나서 일종의 독후감 성격으로 남긴 글 7편을 비롯하여 역사 논평 성격의 글을 총 13편 남겼다.[12] 이 가운데 제갈량(諸葛亮), 순욱(荀彧)을 제재로 한 글이 지식인의 출처 또는 처세와 관련 있는 글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이들과 마찬가지로 근대 전환기의 학자이자 우국지사(憂國之士)로 잘 알려진 황현은 당시의 혼란했던 시국을 다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인지하고서 현실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던 인물이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 활동과 구국운동 등의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기도 하였고, 『매천야록(梅泉野錄)』, 『오하기문(梧下記聞)』, 『동비기략(東匪紀略)』 등 당대의 역사를 기록한 저술의 창작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황현의 문집 『매천집(梅泉集)』에는 3편의 논이 실려 있는데, 이 3편 모두 사론 산문에 해당한다.[13] 황현은 사론 산문을 통해 양웅(揚雄), 백리해(百里奚), 상산사호를 제재로 다루었는데, 이 3편의 글에서 보이는 주제의식이 모두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던 지식인상(知識人像)과 관련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14] 뒤에서 자세히 분석하겠으나 여기서 제시한 지식인상으로부터 황현 당대에 행세하기만 좋아했던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을 찾아볼 수 있는 동시에 자기 스스로를 다잡고자 하는 다짐의 의미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편수는 많지 않지만 사론 산문을 통해 동시대 지식인들의 출처와 처세에 관

12) 「불의이부차귀어아여부운론(不義而富且貴於我如浮雲論)」, 「전필극론(戰必克論)」, 「독통감론(讀通鑑論)·강충우태자가사거행치도중수이속리(江充遇太子家使車行馳道中收而屬吏)」. 「독통감론·원소소동탁(袁紹召董卓)」, 「독통감론·제유충려어국자단근공오궐(諸有忠慮於國者但勤攻吾闕)」, 「독통감론·순욱(荀彧)」, 「독통감론·위연작란(魏延作亂)」, 「독통감론.위사마소발수춘살제갈탄(魏司馬昭拔壽春殺諸葛誕)」, 「독통감론·정령적빈기병공낙양진사모용수토지수반진여빈합(丁零翟斌起兵攻洛陽秦使慕容垂討之垂叛秦與斌合)」, 「송서선지부량사회폐기주의부위영양왕영의도왕의륭어강릉(宋徐羨之傅亮謝晦廢其主義符爲營陽王迎宜都王義隆於江陵)」, 「송주폐팽성왕의강사안성군(宋主廢彭城王義康徙安成郡)」, 「위사잡민어북변이이유연(魏徙雜民於北邊以餌柔然)」, 「송대거침위(宋大擧侵魏)」의 13편이다.

13) 「양웅론(揚雄論)」, 「백리해론(百里奚論)」, 「사호론(四皓論)」의 3편이다.

14) 정양완은 황현의 산문을 분석하면서 그 가운데 논을 중심으로 문학정신을 살펴본 바 있다. 정양완, 「散文을 통해 본 梅泉의 문학정신」, 『진단학보』 61집, 진단학회, 1986, 97-122면.

www.kci.go.kr

한 비판을 제기하고 나아갈 방향을 우회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음미해볼 가치가 있다. 본고에서는 황현의 글을 중심에 두고, 그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동시기 지식인들의 논의를 보조 자료로 삼아 당대 인물들이 출처와 처세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인물 평가를 통해 본 황현의 출처와 처세 의식

3.1. 은거(隱居)와 출사(出仕)의 갈림길

일반적으로 역사 인물을 평가할 때에는 주로 정사류(正史類) 저술에 남아 있는 기록을 실증(實證) 자료로 참조한다. 따라서 오랜 기간 필독서로 읽혀 온 정사류 저술은 애초에 진위 여부를 떠나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 일단 사서(史書)에 남게 된 기록은 변하지 않고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역사가 모든 사실(事實)을 기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논리적·실증적 허점이 없을 수만은 없다. 후대의 작가들은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들어 자신의 가치관과 역사 인식 등을 기준으로 해당 인물을 새롭게 재단하고 평가하게 된다. 역사상의 인물이 작가의 손에서 재평가를 받고 새로운 형상으로 그려질 때는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해당 인물의 특정한 면모를 부각시키거나 축소하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작가 개인의 가치관, 작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 등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황현의 글 가운데 출처와 관련해 중요하게 살펴볼 역사 인물은 상산사호이다. 상산사호는 진(秦)나라 말엽 혼란한 세상을 피해 상산(商山)에 은거했다고 전해지는 네 명의 늙은 현인 동원공(東園公), 녹리선생(甪里先生), 기리계(綺里季), 하황공(夏黃公)을 가리킨다. 후에 한고조(漢高祖)가 후사를 결정할 때 장량(張良)의 초빙을 받고 태자를 보좌하여 한고조의 마음을 혜제(惠帝)로 결정하게 했다는 고사가 잘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속세를 떠난 은자(隱者)의 상징으로 언급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 후사 계승에 간여했다는 점

www.kci.go.kr

에 있어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상산사호는 그 행적의 진위(眞僞)나 시비(是非) 여부를 두고 빈번하게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하나의 전형적인 역사 인물이다.[15] 따라서 상산사호에 대한 이전 시기 논의를 상호 참조하여, 황현이 상산사호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상산사호에 대한 평을 남긴 이정직의 논의를 참조한다면 근대 전환기 유학자들의 출처 의식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논자들이 상산사호에 대한 언급의 근거로 삼는 사실(史實)은 『사기(史記)』「유후세가(留侯世家)」와 『한서(漢書)』「장량전(張良傳)」에 보인다.[16] 두 사서의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장량이 태자를 위한 계책으로 상산사호를 초빙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기』보다 『한서』에 더욱 자세하게 그려져 있으며, 후대의 논자들이 논의의 근거로 삼은 것 역시 대부분 『한서』에 의지하고 있다. 비록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지만 논의의 진행을 위해 『한서』「장량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천하가 안정된 뒤에 한고조는 본래 태자로 세웠던 여후(呂后)의 아들 영(盈)을 폐위하였다. 대신 총애하던 척(戚)부인의 아들인 여의(如意)를 태자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였다. 당시 대신들이 이 일에 대해 간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차에 여후가 장량에게 자신의 아들 영을 위한 계책을 묻는다. 그러자 장량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덕망이 있던 상산사호를 초빙하여 태자를 모시게 하면 한고조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계책을 내놓았다. 이후 과연 장량의 계책대로 한고조는 태자에 대한 보좌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태자를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이 일은 한고조가 함부로 적자(嫡子)를 폐위하고자 했다는 비판, 장량이 조정에 붕당을 심은 것이라는 비판, 상산사호가 유영을 도운 일이 사실 공(功)이 아니라 과(過)에 해당한다는 비판 등 후대에 다양한 형태의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그 가운데 상산사호에 대한 논란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

15) 우지영, 앞의 논문 참조.
16) 『史記 · 留侯世家』 권55; 『漢書 · 張陳王周傳』 권40.

www.kci.go.kr

뉜다. 첫째, 상산사호의 실존(實存) 여부이다. 이를 의심하던 이들은 책략이 뛰어났던 장량이 태자 영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 은자로서 높은 명성이 있었던 상산사호를 위장해 가짜 상산사호를 내세웠다고 본다. 중종(中宗)과 명종(明宗) 연간에 활동했던 문인들로부터 '상산사호의 유무에 대한 변론(四皓有無辨)'이라는 제목의 글을 다수 찾아볼 수 있는데,[17] 그들의 실존 여부에 대한 해석은 모두 제각각이다. 각 작가가 중시하는 가치가 무엇이었는가에 따라 다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둘째, 출처의 시비 문제이다. 만약 상산사호가 실존했었다고 가정한다면, 처사로서 은거하던 그들이 장량의 초빙에 응해 한나라 조정에 나아가 태자를 도운 일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가를 다지는 부분이다. 다음에 제시하는 이이(李珥, 1536~1584)의 언급은 위의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모두 참조가 된다.

> 내가 한사(漢史)를 읽다가 상산사호의 출처가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괴이하게 여겼으나 감히 겉으로 말을 꺼내 그들을 비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퇴계(退溪)를 만나 그 일에 대해 물어보니 나의 의견과 정확히 합치되었다. 다만 나의 의견과 합치되는 전대(前代) 현인들의 논의를 보지는 못했었다. 하루는 『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를 보았는데, 주자(朱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다. "상산사호는 참된 유자는 아닌 듯하다. 단지 지모가 있었던 선비일 뿐이다."[18] 나는 그때서야 내 견해가 틀리지 않았음을 믿게 되었다. 혹자들은 태자를 도왔던 이들이 가짜 상산사호이며 온 조정의 사람들이 장량(張良)의 술책에 빠진 것이라고들 한다. 만약 그렇다면 군주를 속인 장량의 술책이 이보다 더 심할 수는 없는 법이므로, 이 말 역시 믿을 수는 없다. 대개 전국시대(戰國時代) 말엽에는 선비들이 도를 알지 못하고 단지 기개를 가지고서만 남들보다 뛰어나고자 하였다. 상산사호는 단지 한고조의 업신여김을[嫚罵] 피

17) 黃俊良(1517~1563), 「四皓有無辨」, 『錦溪集』권4; 朴承任(1517~1586), 「四皓有無辨」, 『嘯皐集』 권3; 盧禛(1518~1578), 「四皓有無辨」, 『玉溪集』 속집권3; 柳景深(1516~1571), 「四皓有無辨」, 『龜村集』 권2. 이들 네 명의 생몰년, 그리고 작품의 서두가 '臣謹按', '謹按', '愚按' 등으로 시작한다는 점을 참조할 때 같은 시기에 동일한 試題를 두고 쓴 글임을 알 수 있다.

18) 『性理大典書 · 四皓』 권61. "觀四皓, 恐不是儒者. 只是智謀之士."

www.kci.go.kr

하였을 따름이니 어찌 이윤(伊尹)과 태공(太公)이 세상을 피해 은둔한 것과 같겠는가! 만약 한고조를 알현하지 않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면 안기생(安期生)이나 괴철(蒯徹)과 같은 부류도 훌륭한 선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9]

인용문에서 보듯 이이는 상산사호의 출처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갖는다. 다만 이미 은자이자 현인으로 추앙받는 이들에 대해 함부로 논단할 수가 없어서 비난은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다 이황(李滉, 1501~1570)과 의견이 합치되고, 주자(朱子)의 글에서 자신의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발견한 후에 비로소 자신의 의견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된다. 인용문만으로 이이의 출처관에 대해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글을 통해 상산사호를 바라보는 성리학자들의 시각을 일부 확인할 수는 있다. 또한 이이는 은자(隱者)에 대해 논하면서, "불세출의 재주를 품고 한 시대를 구제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욕심 없이 도(道)를 즐겨, 재주를 감춰두었다가 세상에 쓰이기를 기다리는 자는 천민(天民)이다."라고 하여 이윤(伊尹)과 태공(太公)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니 결국 장량의 초빙에 응해 세상에 나아간 상산사호는 그들과 같은 반열에 둘 수 없다는 것이다.

16세기 중반에서부터 17세기 초반에 걸쳐 상산사호를 제재로 한 논의가 빈번하게 나왔던 데에는 상산사호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당시 조선의 시대적 상황이 유사했다는 배경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 속에서 당시 사림들은 상산사호의 행적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출처를 판단하였다. 실제 박승임(朴承任, 1517~1586)·류경심(柳景深, 1516~1571)·황준량(黃俊良, 1517~1563)·노진(盧禛, 1518~1578) 등의 행적은 글을 통해 보인 자신들의 출처관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20]

---

19) 李珥, 「瑣言」, 『栗谷全書』 권14, "余讀漢史, 怪四皓之出處不正, 未敢顯言非之. 及見退溪質之, 正與鄙意相合, 但未見先正之論. 一日, 覽性理大全, 朱子曰: '四皓, 恐非儒者. 只是智謀之士.' 余乃信吾見之不謬也. 或以羽翼太子者, 爲僞四皓, 擧朝皆墮張良術中. 然則良之欺君, 無狀甚矣, 此言亦不可信. 蓋戰國之末, 士不知道, 但以氣槪相高. 四皓只避高祖之嫚罵耳, 豈若伊尹·太公之避世哉! 若以不見高祖爲高, 則安期蒯徹之流, 亦可謂高士乎!"

www.kci.go.kr

이후 광해군 시기에도 상산사호를 둘러싼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제법 흥미롭다.

> 양사가 아뢰기를, "전라도 도사 김시언(金時言)은 앞서 주서(注書)가 되었을 때가 역적 이진(李珒)의 변이 일어난 초기로 곧 삼사(三司)가 고변하였다는 설이 있었는데, 충홍도(忠洪道)의 경시관(京試官)이 되어 '신하가 임금을 원수처럼 본다.'는 것으로 출제함으로써 그 당시의 선비들이 지금까지 통분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증광문과의 초시 때 무안현(務安縣)에 과장을 설치하였는데, 시언이 또 상시관(上試官)으로 가서 참여하여 '사로(四老)가 유씨(劉氏)를 멸망시켰다.'를 논(論)의 제목으로 출제하였습니다. 이에 유생들이 묻기를 '이 제목은 오늘날의 일과 매우 흡사한 것인데 어찌 이것으로 냈는가?' 하니 시언이 답하기를 '우연히 출제한 것이니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하였습니다.[21]

과거 시험에서 '상산사호가 유씨의 한나라를 망쳤다'라는 시제(試題)를 출제하자 응시자들이 당시의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건이다. 이 일에 대해 이긍익(李肯翊, 1736~1806)은 "사호가 유씨를 멸한다는 것은 정인홍(鄭仁弘)의 무신년 소를 기롱한 것이고, 사관에게 바로 쓰기를 명하였다는 것은 임해의 옥사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22]라는 언급을 기록해 두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이 당시의 정세를 한고조 당시의 정세와 유사하게 파악했음을 의미한다. 광해군이 세자였을 당시 선조(宣祖), 광해군(光海君), 영창대군(永昌大君) 사이의 관계가 한고조, 혜제 유영, 유여의의

---

20) 백진우, 「조선후기 사론 산문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1, 88면; 우지영, 「상산사호 관련 논변을 통하여 본 조선 중기 문인들의 출처관」, 『국학연구』 32집, 한국국학진흥원, 2017, 154면 참조.

21) 『光海君日記』, 광해군 4년(1612) 6월 4일조. "兩司啓曰: 全羅道都事金時言, 前爲注書時, 當逆珒變生之初, 有三司告變之說, 爲忠洪道京試官, 以'臣視君如仇讎', 出論題, 其時士子等, 至今痛惋. 今者增廣文科初試時, 設場於務安縣, 而時言又以上試官往參, 以'四老滅劉', 出論題. 儒生等問曰: '此題逼當代事, 而何以出之耶?' 時言答曰: '偶然出之, 有何所妨?'"

22) 李肯翊, 『燃藜室記述 · 臨海君之獄』, "四皓滅劉者, 譏萊菴戊申疏, 命史直書者, 指臨海獄而言也."

www.kci.go.kr

관계와 흡사했다고 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당파 간의 이해 관계 속에서 상산사호의 일을 빈번하게 언급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23]

이처럼 역사 인물의 해석은 저술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상산사호에 대한 황현의 해석을 살펴보자.

> 삼대(三代) 이후의 인물을 논하면서 만약 모든 사람들에게 군자다운 출처를 요구한다면 이 세상에는 온전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며 사람에게는 이룬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상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 어찌 이것이 하늘이 백성들을 세상에 나게 한 본뜻이겠는가! 하늘이 백성을 세상에 나게 한 이유를 끝까지 궁구해 보면 한 번의 치세(治世)와 한 번의 난세(亂世)가 때때로 기운의 변화에 따라 추동되었다. 그런데 난세에는 또한 반드시 이를 구제하고 해결해 줄만한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그 뒷일을 대비하게 하였으니, 억세고 완고한 이들을 바로잡고 어지러움과 위기를 해결하였다. 요행히 하루를 무사하게 보내더라도 오히려 백성들이 안정을 얻지 못할까 걱정한 것이다. 비록 그 사람의 계책과 마음이 반드시 모두 올바르게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공적과 이로움이 백성들에게 크게 미쳤다면 이 또한 하늘이 허락한 것이며 성인이 인정한 것이다.[24]

위의 인용문은 상산사호의 행적에 대해 논한 사론 산문인 「사호론(四皓論)」의 서두이다. 논평의 대상으로 다루는 인물을 잠시 뒤로 미뤄두고 글의 전체적인 논지와 관련한 일반론을 먼저 제시하였다. 이는 사론 산문의 일반적인 서두 시작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독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전제를

---

23) 광해군 시기 상산사호를 둘러싼 해석, 논점, 논란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정하정, 「광해군 시기 張良을 제재로 한 史論 散文의 일고찰」, 『대동한문학』 42집, 대동한문학회, 2015, 129-166면.

24) 黃玹, 「四皓論」, 『梅泉集』 권6, “夫論人於三代之後, 如將人人焉責以君子之出處, 則是世無一人之可全, 人無一事之可集. 殆無以維持世宙, 豈天所以生斯民之意也哉! 原天之生斯民也, 一治一亂, 有時爲氣化之所推蕩, 而及其亂也, 又必生拯救補苴之人以擬其後, 鋤强格頑, 解紛釋難. 幸夫一日之無事, 而猶恐斯民者之不得其安. 雖其人謀猷心跡, 雖未必一出於正, 而其功利之及於民者大, 則盖亦天意之所許, 而聖人之所予也.”

www.kci.go.kr

먼저 제시한 후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이때 독자가 대전제에 설득될 경우 세부적인 층위에서의 설득 또한 어렵지 않게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황현은 출처에 관해 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설정한 후에, 그 범위 내에서 상산사호가 보였던 출처의 시비를 판단하고자 한 것이다.

황현은 서두의 첫머리에서 "삼대(三代) 이후의 사람들에게 모두 군자다운 출처를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삼대 이후로는 그 누구도 군자다운 출처를 완벽하게 시행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가 처했던 상황과 그 대응에 따라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일정 정도의 흠결은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흠결이 있거나 모든 계획이 정도(正道)에서 나오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적과 이로움이 백성들에게 미쳤다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다. 여기서 황현이 군자의 출처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읽어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황현은 이어지는 의미 단락에서 공자가 출처의 시비를 논한 몇몇 인물들을 구체적인 예시로 들고 있다.

공자는 관중(管仲)이나 정자산(鄭子産)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칭찬하고 치켜세웠다. 비록 미봉책을 썼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더라도 그러한 노력이 결국 혼란한 천하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장저(長沮), 걸닉(桀溺), 삼태기를 멘 노인에 대해서는 조수(鳥獸)의 무리로 매도하였다. 이들은 모두 은자(隱者)로서 절개를 지킨 면모를 보인 인물들이었는데, 혼란한 시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오히려 후대의 유자들이 이들을 본받는다고 하면서 '벼슬에 나아가기는 어렵게 하고 물러나기는 쉽게 해야 한다.[難進易退]'의 구실로 삼는 황당한 일이 생겨버렸다고 비판하였다.[25] 황현은 이와 같은 공자의 인물 평가를 긍정함으로써 자신이 생각하

25) 黃玹, 「四皓論」, 『梅泉集』 권6, "而於管仲 · 子産之徒, 所以彌縫苟且, 僅收一時之效者, 亦皆奬而進之. 至若硜硜小節, 果於忘世, 則沮 · 溺 · 荷蕢未必非賢者, 而不曾假借, 直斥以鳥獸之羣. 非若後世曲儒藉口於難進易退, 創爲苛礉謬悠之論, 以譏刺千古而操切一世者."

www.kci.go.kr

는 올바른 출처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였다. 잗다란 절개를 중시하며 은자를 자처하는 것보다 세상에 나아가 어지러움을 구원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황현은 이어지는 논의에서 본격적으로 상산사호의 행적과 그들을 둘러싼 논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다.

> 진한(秦漢) 시기에는 이미 성인과의 거리가 멀어졌으며 백가(百家)들이 뒤섞였고 전해지던 경전도 모두 재가 되어 버렸다. 당시의 선비들 가운데 성인의 책을 구해서 읽을 수 있는 자가 거의 없었으니 출처의 올바름을 세울만한 기준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지금 저 상산사호는 한 번 세상에 나와서 태자의 지위를 안정시키고 종묘사직을 안정시켰으니 그 공이 참으로 위대하다. 혹자들은 상산사호가 태자를 안정시켰기 때문에 여씨(呂氏)의 난이 일어났고, 여씨의 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 어떤 이는 상산사호는 처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의 일에 간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도 한다. 이러한 평가의 우열에 대해서는 아직 정론(定論)이 없으나, 요약해 보면 두 가지 의견 모두 잘못되었다.[26]

황현은 상산사호의 행적에 관한 논쟁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이 비난을 받는 두 가지 지점에 주목하였다. 첫째, 태자 유영의 지위를 안정시켰기 때문에 여씨(呂氏)의 전횡이 발생하여 결국 한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판이다. 둘째, 은거하는 처사가 나랏일에 관여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비판이다. 황현은 이러한 비판의 지점을 정확하게 인지한 가운데, 두 가지 비판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한나라 당시의 정세를 하나하나 분석하며 자신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제시한다. 모두 상산사호를 옹호하는 논리이다. 그러한

26) 黃玹, 「四皓論」, 『梅泉集』 권6, "秦漢之際, 去聖已遠, 百家淆雜, 遺經灰燼. 當時之士, 得讀聖人書者無幾矣, 而可得槩以出處之正乎? 今夫四皓一出, 安太子而定宗社, 厥功偉矣. 或者以四皓之安太子而有呂氏之亂, 有呂氏之亂而漢幾亡, 或者以四皓處士也, 不當干人國家事. 雌黃軒輊, 汔無定案. 要之二者皆非也."

www.kci.go.kr

끝에 결론에서 진정한 처사의 의미에 대해 되새기고 상산사호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한다.

> 아! 처사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출사하였을 때 쓸 만하기 때문이다. 처사라고 불리면서 국가에 난리가 나고 망하게 되는 것을 익숙히 보면서도 입을 다물고 팔짱을 끼고서는 나라를 구원할 만한 말을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다가,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만하게 말하기를, "나는 처사이다. 나라의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한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불러 주기를 기대하면서 군주가 재촉하면 그제야 출사를 하여 범승(范升)이 주당(周黨)을 탄핵하고 이고(李固)가 번영(樊英)을 기롱한 일처럼 행동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역사에 기록되어 사람들의 눈을 가린다. 심지어는 벼슬길에 나가기 위해 은자의 길에 들어서는 부류까지 연달아 그 지름길 곁으로 모여든다. 그러나 나라의 일에는 물론이고 고을 사람들의 모범이 되기에도 부족하다. 아! 저들 상산사호는 참으로 처사로구나! 참으로 세상을 구한 선비로구나![27]

황현은 상산사호의 공을 위대하다고 여기면서도 행적의 실재 여부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비판을 받는 지점인 끝까지 은거를 지키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전대의 논자들과 생각을 달리한다. 오히려 황현은 가장 적당한 때에 나아가 세상을 안정시킨 공이 크다고 치켜세운다. '나라가 혼란할 때'라는 시대적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출사를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은 상산사호에 대한 논의인 동시에 출처에 대한 논의라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혼란한 시기 지식인의 올바른 출처를 논하기 위해 가장 적당한 인물인 상산사호의 경우를 끌어왔다고 볼 수도 있다.

---

27) 黃玹, 「四皓論」, 『梅泉集』 권6, "嗚呼! 所貴乎處士者, 以其出而可用也. 號稱處士而熟視人家國之亂且亡, 緘舌袖手, 曾一言之莫救. 人有訾之者, 則傲然曰, '我處士也, 於國事何有?' 及夫索價衒鬻, 迫之斯出則范升之彈周黨, 李固之譏樊英, 班班靑史, 令人掩目. 甚至隨駕充隱之類, 接踵捷逕之側. 而毋論人家國事, 幷不足以矜式州里. 嗚乎! 若四皓者, 其眞處士哉! 其眞救世之士哉!"

www.kci.go.kr

황현은 “처사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출사하였을 때 쓸 만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 보이는 황현의 출처관을 고려해 보면, 황현에게 있어서는 나라의 위기에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처사를 자처하며 은거하는 이들은 진정한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대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가 어지러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는 충분히 위대한 공적을 세운 이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다분히 황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둔 상산사호에 대한 재평가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처럼 역사 인물에 대한 논평이 황현이 견지했던 가치관과 일정 정도 맞닿아 있음을 동시대 다른 이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황현과 함께 근대 전환기의 우국지사로 평가받는 간재(艮齋) 전우(田愚, 1841~1922)의 경우 황현이 남긴 글에 발문(跋文) 성격의 글인 제후(題後) 「제사호론후(題四皓論後)」를 짓고 자신의 평가를 덧붙여 두었다. 이 글에서 전우는 주자(朱子)가 사호를 두고서 “단지 권모술수에 능했던 선비들[四皓只是權謀之士]”이라고 비판한 사실, 율곡 이이와 퇴계 이황이 출처가 바르지 않다고 비난했던 사실 등을 언급하며, 황현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 황현이 (상산사호를) 지극한 뜻으로 높였으니, 그가 그저 강학이나 하는 유자들을 좋게 여기지 않은 일을 어찌 이상하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황현이 고금의 절의 있는 선비들을 읊은 일이 무척이나 많으니, 강개하며 비장한 글은 또한 모두 그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최후에 한 번 큰 절개를 우뚝하게 드러내었으니 나라의 광채를 더했다고 하기에 충분하다. 그 나머지는 생략해도 무방할 것이다.[28]

사실 글 전체의 논지를 보면 전우는 황현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

28) 田愚, 「題四皓論後」, 『艮齋集 · 後編續』 권6, “黃氏乃極意推尊, 其不喜講學之儒, 亦何足異乎? 雖然, 黃氏詠古今節義之士極多, 而其慷慨悲壯之詞, 又皆出於素性. 其最後一著大節偉然, 更足以增國家之光. 餘可畧之.”

www.kci.go.kr

지는 않다. 황현이 주자, 이이, 이황과 같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상산사호를 두고 '썩은 유자[腐儒]'로 지칭하며 종유하기를 꺼려했을 것이라고도 평가할 정도였다. 하지만 황현이 평소 유자들의 진부한 학문 경향을 꺼렸기 때문에 「사호론」을 지어 당대 유자들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전우의 평가를 고려한다면 황현이 당대 지식인들의 출처에 대해 논하기 위해 「사호론」을 지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것이다.

3.2. 참된 유자[眞儒]와 거짓 유자[僞儒]의 변별

사론 산문에서 제재로 제시하는 역사적 인물은 대표성 혹은 전형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역사상의 어느 한 지점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세월을 뛰어넘어 어느 시대에나 특정한 가치의 대명사로 통용될 수 있다. 예컨대 유자(儒者)를 '참된 유자[眞儒]'와 '거짓 유자[僞儒]'로 나눌 경우 한나라 양웅(揚雄)은 언제나 거짓 유자의 전형으로 지칭되는 인물이다. 먼저 양웅에 대한 앞선 시기 논자의 평가를 확인해 보자.

> 양웅(揚雄)은 '거짓[僞]'에 병통이 있다. 안으로는 실상이 없으면서 밖으로 이름만 꾸몄으니, 또한 왕망(王莽)이 걸핏하면 주공(周公)을 자처한 것과 같다. 그가 지은 『태현경(太玄經)』과 『법언(法言)』은 왕망이 겸손함으로 선비들에게 자신을 낮춘 것과 무엇이 다르겠으며, 신(新)나라를 미화하는 글을 지은 것은 왕망이 한(漢)나라를 찬탈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으며, 천록각(天錄閣)에서 뛰어내린 것은 왕망이 점대(漸臺)에서 죽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것이 양웅이 유자이면서 유자 중의 '거짓[僞]'이 되는 까닭이다.[29]

위의 인용문은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의 글로 순자(荀子), 양웅, 왕통(王通), 한유(韓愈)에 대해 평가하면서 각각 누구에게 어떤 잘못이

29) 朴世堂, 「荀揚王韓優劣論」, 『西溪集』 권7, "揚患於僞. 內無其實而外飾其名, 亦猶王莽之動以周公自爲也. 其太玄法言, 何異莽之謙恭下士, 而及至美新, 何異莽之簒漢. 及至投閣, 何異莽之漸臺. 此揚雄氏之爲儒而儒之僞也."

www.kci.go.kr

있는지를 변론한 글이다. 이처럼 대비되거나 대조되는 여러 인물들을 대상으로 우열을 논하는 글은 사론 산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목에 '누가 더 낫고 못한가[孰優孰劣]'의 방식으로 비교 대상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목에 드러내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을 내용 속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박세당은 이 글을 통해 유자의 병통을 '거짓[僞]', '참람됨[僭]', '거침[粗]', '성김[疎]'의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거짓'과 '참람됨'은 유학자로서의 품성과 태도에 관한 문제이고, '거침'과 '성김'은 학자로서의 학문적 자세에 관한 문제이다. 박세당은 양웅을 두고 실상은 없으면서 겉으로 이름만 꾸며댔다는 점을 비판의 주된 논거로 삼았다. 박세당의 글 외에 본격적으로 양웅을 제재로 한 사론 산문은 찾기 어렵지만, 전근대시기 지식인들에게 양웅이라는 인물은 뛰어난 재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로서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양웅에 대해 황현은 본격적으로 사론 산문을 창작하여 평가를 내린다. 황현의 「양웅론(揚雄論)」은 표면적으로는 거짓 유자인 양웅에 대한 비판이되, 그 이면에는 양웅과 같은 행실을 보이는 당대의 거짓 유자들에 대한 비판이 함께 들어 있다.

> 성인(聖人)은 배워서 같아질 수 있는가?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배울 수는 있으나 같아질 수는 없다고. 만약 배우되 모두들 꼭 같아지려고 한다면 장차 거짓이 되는 일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잘 배우는 자는 성인의 본뜻을 구하지 행적에 얽매이지 않으니 또 어찌 꼭 같아지기를 일삼겠는가! 성인을 겉으로만 존모하여 오직 그 행적에만 얽매인다면 자지(子之)도 요순(堯舜)과 같아질 수 있고, 조조(曹操)도 문왕(文王)과 같아질 수 있다. 이는 큰 혼란을 일으키는 도리이니 계속해서 거짓을 행하는 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일반 사람들이 성인과 같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성인이 성인을 배우더라도 또한 서로 같아지기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은 요순을 배웠지만 선양(禪讓)은 배우지 않았고 주공(周公)은 이윤(伊尹)을 배웠지만 군주를 내치는 일은 배우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성인이 되는 데 문제가 없었다. 맹자께서는 "내 소원은 공자를 배우는 일이

www.kci.go.kr

다."라고 하였다. 지금 살펴보니 맹자는 참으로 잘 배우셨다. 그러나 나아가고 물러나고 사양하고 받는 절의와 말씀 행동 기상의 측면에 있어서는 실로 맹자와 공자가 서로 같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는 아마도 행적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도에 대해서는 동일했기 때문일 것이다.[30]

위의 인용문에서는 성인을 잘 배우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글의 논지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전대의 성인을 잘 배우는 것은 결국 그 본뜻을 구하는 데 있지 겉으로 드러나는 세세한 행적을 닮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서 황현은 양웅이 공자의 본뜻을 번번이 왜곡하며 자신의 행적을 변호하는 구실(口實)로 삼았던 일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아! 『태현경』과 『법언』이 비록 참람하기는 하지만 만약 양웅이 이 저서들을 품고서 곤궁하게 굶주리며 살았더라면 또한 공자의 학도가 될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방자하게 스스로를 안연과 증자 이상의 수준에 비견함으로써 양웅의 본 면모까지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 양웅은 실로 망녕된 사람이며 또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세상의 유자들에게 경계가 되기에 충분하다.[31]

위의 인용문에 보이듯, 양웅에 대한 비난의 종착지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세상의 유자들'이다. 여기서 지적한 세상의 유자들이란, 이 글에서 제재로 삼은 양웅인 동시에, 양웅 이후의 유자들 가운데 누구라도 그와 같은 행적을

30) 黃玹, 「揚雄論」, 『梅泉集』 권6, "聖人可學而似乎? 曰, 可學也, 不可似也. 使學焉而皆取必乎似, 則將不勝其僞矣. 是以善學者, 求其意而不拘其跡, 亦安事乎似也哉! 夫惟浮慕聖人, 規規乎惟跡是拘, 則子之可以似堯舜, 曹操可以似文王. 此大亂之道也, 不止於相率以僞矣. 故非徒衆人之不能似聖人, 雖以聖人學聖人, 亦不求其相似. 湯武學堯舜者也, 不學其禪讓, 周公學伊尹者也, 不學其放君. 然皆不害爲聖人. 孟子嘗曰所願則學孔子. 由今視之, 信乎其善學也. 然其出處辭受之節, 言行氣象之間, 實有不能相似者. 盖不拘乎跡而所同者道也."

31) 黃玹, 「揚雄論」, 『梅泉集』 권6, "嗟乎! 玄與法言雖僭乎, 使雄抱以窮餓, 亦不失爲孔氏之徒. 而乃怯然自擬於顔曾以上, 幷其所以爲雄者而失之. 雄固妄矣, 亦足爲世儒自大者戒也."

www.kci.go.kr

보인 이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만 황현은 그러한 행적을 보인 이들을 일일이 거론하여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글만으로 양웅을 제재로 삼은 이유가 황현 자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동시대의 유자들을 비판하는 데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황현이 남긴 다른 글과 상호 참조할 경우 이러한 비판 의식이 동시대 유자들과 일정하게 연결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 하나의 예로 「동계초당기(東溪草堂記)」에서의 언급을 보자.

> 우리 조선이 나라를 세운 것이 송(宋)나라와 같고 진유(眞儒)가 배출된 것도 정자와 주자의 융성기에 버금간다. 하지만 그러한 추세가 누적되면서 표면상의 존모가 고질이 되었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서 허위가 혼재하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대체로 지난 역사책에 전해지는 남다른 행실의 은일지사(隱逸之士)들이 모두 마음과 본성에 대해 논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 중에 위대하고 우뚝한 절행으로 천고에 빛날 자가 어찌 끝이 있겠는가! 근세의 선비들은 생전에는 조금씩 스스로를 치장하고, 죽은 뒤에는 반드시 몇 권의 문집을 남긴다. 이(理)와 기(氣)를 분석하여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또는 이른바 입언(立言)이라는 것을 추숭하여 묘지(墓誌)와 행장(行狀)을 짓는다. 그러니 또한 엄연한 도학선생(道學先生) 아닌 이들이 없다. 그러나 저 멀리로는 양홍(梁鴻)이나 서치(徐穉)와 같은 굳은 절개도 없고, 가까이로는 임포(林逋)나 위야(魏野)와 같은 성정이 담긴 시를 쓰지도 못한다. 표절에만 의지하여 성리학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들 떠드니 스스로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일에 가깝지 않겠는가![32]

위의 인용문에는 동시대 유자들에 대한 비판 의식이 오롯이 담겨 있다. 세상의 도리가 시대에 따라 하강한다는 유가의 기본적인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예전과 비교할 때 당대 유자들의 행적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

32) 黃玹, 「東溪草堂記」, 『梅泉集』 권6, "我朝立國, 與趙宋同, 眞儒輩出, 亦庶幾洛建之盛. 而積勢所趨, 浮慕成痼, 及其久也, 未嘗無虛僞之混焉. 夫前史所傳隱逸獨行之倫, 不必皆說心說性, 而奇偉卓絶, 輝映千古者何限. 乃近世之士則生前稍自修飾, 身後必有幾卷文字. 劈理抽氣, 張皇飣餖, 又推所謂立言者而成其誌狀. 則又未嘗非儼然道學先生. 然上焉而無梁鴻·徐穉之苦節, 下之求其有林逋·魏野性情之詩, 而亦不可得. 依假剽襲, 惟理學是云, 不幾於自欺而欺世乎!"

www.kci.go.kr

였다. 그래서 황현은 예전 선배들 가운데 '참된 유자[眞儒]'가 많았으나, 당대에는 겉으로만 참된 유자인 척하는 '거짓 유자[僞儒]'들만 남았다고 비판하였다. '생전에 스스로를 치장하고', '죽은 뒤에 문집 몇 권을 남기고', '이(理)와 기(氣)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논하고', '묘지나 행장을 짓는' 모습들이 겉으로 보기에 제대로 된 유자로 보이기 위한 노력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앞서 「양웅론」을 통해 비판했던 거짓 유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양웅에 대한 비판이 단지 시대를 뛰어넘어 적용 가능한 보편타당한 이치 제시에 그치지 않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유자들에 대한 비판에 해당함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백리해론(百里奚論)」 역시 같은 맥락에서 황현이 처했던 상황과 관련지어 읽어볼 수 있다. 백리해(百里奚)는 춘추시대 인물로서 본래 우(虞)나라의 대부였다가 후에 진목공(秦穆公)에 의해 발탁되어 능력을 펼친 인물이다. 명재상 관중에 비견될 만한 인재로 평가받는다. 백리해를 제재로 한 사론 산문은 몇 편 남아 있는데, 논자의 관점에 따라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달라졌다.

조선전기의 윤회(尹淮, 1380~1436)는 백리해가 떠나자 우나라가 망하고, 백리해가 보필하자 진나라가 흥했던 사실에 주목하였다.[33] 백리해는 동일한 인물이지만 어떤 나라에서 머물렀는가에 따라 나라의 흥망이 달라졌다는 사실로부터, 군주가 인재를 제대로 등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종의 용인론(用人論)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대적 배경과도 일정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박민(朴敏, 1566~1630)은 우나라가 망한 책임을 백리해가 간언하지 않은 데서 찾고자 하는 비판으로부터 백리해를 변호하기도 하였다.[34] 군주를 성심껏 섬기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간언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견해이다. 신익전(申翊全, 1605~1660)은 박민과 반대로 백리해가 자신의 안위를 챙겨 군주에게 제대로 간언을 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비판하였다.[35] 임금에게 잘못이 있으면 죽

33) 尹淮, 「百里奚論」, 『東文選』 권99.
34) 朴敏, 「百里奚不諫虞公論」, 『凌虛文集』 권2.

www.kci.go.kr

기를 각오하고 간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후대의 이유원(李裕元, 1814~1888) 역시 간언을 둘러싼 백리해와 궁지기(宮之奇)의 우열 논쟁에 참여하였다.[36] 백리해가 간언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적인 견해가 많지만, 이유원은 간언을 올릴 만한 군주가 아님을 알면서도 끝까지 간언하는 일 또한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는 관점을 보였다.

이처럼 백리해를 둘러싼 논쟁은 죽음을 각오하고 간언하지 않은 일을 두고서 지혜롭다고 봐야 할지 혹은 충성스럽지 못하다고 봐야 할지에 초점이 놓여 있다. 황현은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충(忠)'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 군자가 행한 일이라고 해도 모두 다 옳을 수는 없으며, 성현이 논정(論定)한 일이라고 해도 다 맞을 수만은 없다. 대개 일이란 어느 한 때에 생겨나게 마련이므로 성인이 아닌 이상 모두 다 훌륭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 그 일이 이미 전날의 자취가 된 후에야 말 잘 하는 선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종종 그 은미한 심술(心術)을 궁구하고, 그 일을 들추어내어 이유를 철저하게 따져 최고 극치의 이론을 펼치는 데 힘써, 비록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스스로 변론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후세 선비가 인간사의 성패를 제대로 살핀 것이라 하겠다. 그런 이론은 성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해도 모두 다 그르게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맹자』를 읽으면서 백리해의 일을 볼 때마다 의심이 없을 수가 없었다. 한 번 시험 삼아 다음과 같이 논한다.[37]

인용문은 「백리해론」의 서두이다. 역사서든 경전이든 선인(先人)이 남긴 기록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도 한 마디 첨언하겠다는 말로

---

35) 申翊全, 「百里奚宮之奇孰優論」, 『東江遺集』 권14.
36) 李裕元, 「百里奚宮之奇論」, 『嘉梧藁略』 책13.
37) 黃玹, 「百里奚論」, 『梅泉集』 권6, "事有出於君子之所行, 而不可以爲盡是, 有聖賢之所論定, 而不敢以爲盡然. 盖事出一時, 非聖人無以盡善. 及其已成陳跡, 則能言之士皆可以斷矣. 是以, 往往究其心術之隱, 抉摘其事業, 窮源徹委, 務爲最高極致之論, 雖使古人復起, 無以置喙而自辨, 則是後世之士按人成敗. 其言有不可以不出於聖賢而盡非之者. 余讀孟子書, 見百里奚之事, 小子之惑不能無也. 輒試論之曰."

www.kci.go.kr

시작한다. 이러한 도입부는 여러 사론 산문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 특별할 것은 없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황현이 인간사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중시한 관점이다. 황현은 인간사의 일이라는 것이 모두 어느 한 때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聖人)이 아닌 이상 모두 올바르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황현은 어느 한 사건이 동시대의 일을 뛰어 넘어 역사의 한 자락이 되고 나서야 후대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고, 그 논의가 시대를 뛰어 넘어 보편타당함을 인정받아야만 그 일의 이치를 제대로 파악한 결과가 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역사 해석 관점 위에서 황현은 백리해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 신하는 지혜롭지 못한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충성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혜와 술수가 넉넉한 사람은 항상 본인을 위한 계책[身謀]에 절실하지만, 직언을 하고 절개를 지키는 선비는 항상 거칠고 솔직하며 순박하고 어눌한 사람들 가운데서 구할 수 있다. 군주와 신하가 생겨난 이래로 충성을 다 하지 못하는 신하들은 있었어도 충성스럽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이는 없었다. 우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에 궁지기는 간언을 하였고 백리해는 간언을 하지 않았다. 궁지기가 간언을 한 이유는 우나라가 망할 것을 두려워해서였고, 백리해가 간언하지 않은 이유는 우나라가 망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서였다. 우나라의 신하로서 우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신하된 자로서 과연 어떤 직분이 있었겠는가? 또한 신하된 자로서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평소에 어떻게 군주를 섬겼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군주의 욕심을 이끌면서 아첨하고 총애를 받는 위치를 공고히 하면서 녹봉을 유지하는 것이 모두 그의 일이었을 것이다. 백리해는 현명한 대부였으므로, 한 때 간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소인배라는 죄목을 붙일 수는 없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그가 이치에 통달하고 변화에 능통하여 화란이 생겨나기 전에 방지하여 처신에 허물이 없도록 처신하기 때문이다. 만약 아첨[脂韋]하거나 침묵하면서 제 몸과 집안을 지키는 데만 간절하면서 자기 군주를 마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秦越]

www.kci.go.kr

대한다면 비록 관중 · 안영 · 장량 · 진평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천하의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다. 그렇다면 백리해는 과연 지혜로웠던가 지혜롭지 못했던가?

앞선 시대의 논자들과 마찬가지로 황현 역시 같은 상황에서 정반대의 행적을 보였던 궁지기와 백리해를 함께 두고 평가를 하였다. 궁지기가 간언을 한 이유는 우나라가 망할 것을 걱정해서였고, 백리해는 우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어지는 서술에서는 '지(智)'라는 가치를 중시하여 백리해를 높이 평가하기보다는 '충(忠)'이라는 가치를 중시하여 백리해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해석은 나라가 존망(存亡)의 위기에 처했던 황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지점이다. 제아무리 겉으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자신을 뽐내봤자 나라의 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이들에 불과하다. 때문에 황현은 자신이 살아가던 시기에 절실하게 필요했던 '충'이라는 당대적 가치에 중점을 둠으로써 맹자가 '지'라는 기준을 들어 신하로서의 백리해를 높이 평가한 사실을 반박한 것이다.[38]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봤듯 「양웅론」과 「백리해론」은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유자가 취해야 할 올바른 처세에 관한 논의로 읽을 수 있다. 그 대상은 일차적으로 유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동시대인들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황현 스스로가 전환기를 살아가는 유자로서 중점을 두었던 가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이다.

---

38) 정양완은 매천이 「백리해론」을 쓴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나라의 녹을 먹은 사대부로서 國亡에 이르기 전 미연에 방지 못한 큰 죄에다 사리사욕에만 급급하여 국망은 아랑곳하지 않은 죄를 백리해의 사람을 빌려 痛駁하는 듯하나, 사실은 벼슬을 했건 안했건이 문제될 것 없이, 識者層에 있는 매천 자신이 국망에 거의 束手無策임을 신랄하게 스스로 견책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해석은 이 글을 매천 자신에 대한 일종의 자아비판으로 본 것이다. 정양완, 「散文을 통해 본 梅泉의 문학정신」, 『진단학보』 61집, 진단학회, 1986, 117면.

www.kci.go.kr

4. 결론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근대 전환기는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고수하던 가치와 새로운 문명 요소들이 충돌하던 시기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당대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은 과연 어떤 지향을 보였는지 매천 황현이 남긴 사론 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가 남긴 역사 인물 논평 속에서 유학자의 출처와 처세 의식을 어느 정도 감지해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역사 인물을 대상으로 삼아 논한다고 하더라도 상이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해당 인물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황현이 남긴 3편의 글을 통해 '은거와 출사'에 대한 인식, '거짓 유자[僞儒]'에 대한 비판 의식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이 글은 표면적으로는 역사 인물 논평이지만, 그 이면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던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을 행하기도 하고 자기자신의 출처관과 처세관을 일정 수준 드러내 보이는 글이기도 하다. 본문에서는 위의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지만 이는 결국 일정한 의미 맥락 위에서 이어지는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황현은 역사 인물 논평이라는 글쓰기 방식을 빌려 국가가 장차 망하려는 시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견지해야 할 가치를 제시하였다. 비록 처사를 자처하며 은거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는 현실에 나아가 국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럭저럭 겉모습이나 흉내 내는 거짓 유자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참된 유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로부터 혼란한 시기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당대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아울러 황현 스스로가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이자 유학자로서 평생 중점을 둔 가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론 산문의 창작 목적 가운데 '현재적 유의미성을 중시한 역사 해석'에 무게 중심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자신이 처한 시대적 배

www.kci.go.kr

경과 유사한 과거의 사례를 끌어들여 현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경우이다. 작가 본인 또는 주변 인물들의 직접적인 언급이 남아 있는 입증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소 과도한 추정과 해석이 개입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 인물을 소환하여 논평하는 일이 작가 당대의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참 고 문 헌

1. 자료

黃　玹 著,『梅泉集』, 한국문집총간 348, 한국고전번역원.

李南珪 著,『修堂遺集』, 한국문집총간 349, 한국고전번역원.

李建芳 著,『蘭谷存稿』, 청구문화사, 1971.

『석정이정직유고』Ⅰ.Ⅱ, 김제문화원, 2001.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2. 논저

김영은,「석정 이정직의 사론 산문 고찰」,『한국문화연구』27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4.

백진우,「조선후기 사론 산문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1.

백진우,「丁卯·丙子 胡亂 시기 管仲의 상징성과 歷史 類比 -설득 근거로서의 활용 양상을 중심으로-」,『동양한문학연구』35집, 동양한문학회, 2012.

백진우,「인물 영사시를 통해 본 조선후기 대청 복수 담론의 일국면」,『개신어문연구』36집, 개신어문학회, 2012.

백진우,「병자호란의 상흔에 대한 문학적 치유 양상 연구-역사 인물 구천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어문논집』69집, 민족어문학회, 2013.

송재혁,「왜란·호란 양란기 구천 담론과 재건의 정치」,『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16권,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7.

우지영,「상산사호 관련 논변을 통하여 본 조선 중기 문인들의 출처관」,『국학연구』32집, 한국국학진흥원, 2017.

정양완,「散文을 통해 본 梅泉의 문학정신」,『진단학보』61집, 진단학회, 1986.

정하정,「광해군 시기 張良을 제재로 한 史論 散文의 일고찰」,『대동한문학』42집, 대동한문학회, 2015.

정하정,「蘇武를 제재로 한 과표 창작의 시대적 동인과 그 양상」,『한국언어문화』60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6.

www.kci.go.kr

최혜미, 「霍光 고사의 정치적 활용 양상 일고-중종반정을 전후한 시기를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49집, 근역한문학회, 2017.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the Rule of Conduct in Life of Confucian Scholars during the Turning Point of Modern Ages

– Focusing on the Case of Hwang Hyun –

Baek, Jin-woo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rule of conduct in life(出處觀) of Confucian scholars during the turning point of modern ages. For this purpose, I analyzed 3 historical essays of Hwang Hyun(黃玹). He was a representive figure of patriotic sentiment during the late 19th century.

And it can be said that the source and the situation were important issues that Confucian scholars as intellectuals had to worry about their enture lives. Hwang Hyun showed a certain level of his view of source and customs through writing historiographical essays. Borrowing the method of evaluation historucal figures, he presented the values that should be maintained as an intellectual living in a period when the nation is about to fall.

Through this analysis, I tried to confirm what kind of concerns the Confucian scholars had and what position they took in a situation where the traditional values sustained by Confucianism were threatened and diluted.

Hwang Hyun tried to suggest a direction for the attitude of intellectuals who lived in modern transition period borrowing an evaluation of historical figures. Even if they went into retirement, they saw that in a crisis situation in the country, they should try to solve the real problems. And to this end, he saw that it was necessary to avoid

www.kci.go.kr

the appearance of false Confucian scholar. This view is a criticism of the false appearance of intellectuals of the day, and one can guess that it was a value that he himself sought to keep for his life.

Keyword : Hwang Hyun(黃玹), *Maechunjip*(梅泉集), historiographical essay(史論 散文), the rule of conduct in life(出處)

이 논문은 2020년 10월 23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11월 16일에 심사 완료되어 2020년 11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www.kci.go.kr